

존 칼빈의 설교론

이 홍 찬 교수
(실천신학)

I. 서 론

개혁자들의 입장에서 본 종교개혁은 설교의 회복이요 설교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교개혁이 성경에 대한 재발견이었다면 이 성경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운동은 강단을 통한 말씀 전파에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는 오늘날까지 기독교에 있어서 설교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아왔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본질에 있어서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셔서 복음의 설교자로 보내셨다. 오늘도 설교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설교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음을 강조하신다. 또한 그 명령을 따라 감당하는 말씀 사역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다(마28:18-20).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는 생명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했으나, 아무런 변화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무기력한 설교가 있던 시대의 교회

는 깊은 영적 암흑기를 경험한다. 바로 이러한 암흑의 시대에 실로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강단의 거성이 있었다. 그로 인해 교회는 서서히 영적 활기로 충천했고, 영적 어두움과 고난이 서린 시대의 긴 터널을 벗어나 실로 1000여년만에 설교의 회복과 설교의 부흥을 통해 교회의 참모습을 복원하게 되었다. 그가 바로 종교개혁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자이기 전에 목회자요 설교자였던 존 칼빈이다. 이 글의 내용은 특별히 강단의 거성으로서 종교개혁을 큰 역할을 감당했던 칼빈의 설교의 세계를 살펴봄으로 신학자 칼빈의 성경 주석들과 명작 기독교 강요 등에 의해 가리워져 있는 설교자 칼빈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시도하기를 원한다.

II. 존 칼빈의 설교와 종교개혁과의 관계

1. 설교 회복으로서의 종교개혁

종교개혁과 설교와의 관계를 자세히 고찰해 보면 그 관계가 얼마나 밀접했는가 하는 것은 즉시 드러난다. 이 위대한 혁명의 사건과 업적들은 대부분 설교자와 그들의 설교가 이루어 놓은 작품이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사건들과 원칙들은 설교에 영향을 미쳐 설교 그 자체에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고 새 힘과 새 형식 등을 주었기 때문이다. 주후 4세기 이후 약 1000여년 동안 중세 로마카톨릭의 전성시대는 설교를 잃어버린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는 복음을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으나 이제는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 말씀이 약해지니 자연스럽게 의식적인 종교가 발전되었고 설교는 의식의 그늘에 가려져서 서서히 빛을 잃게 되고 말았다. 그리고 설교가 점점 사라지니 외형적으로 꾸미는 의식이 점점 발전되었고 세속적인 힘을

얻으려고 했다. 이처럼 기독교가 박해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게 되니 로마의 상류사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설교자들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더구나 복음은 스콜라철학에 화를 입어 그 모습을 잃어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여러 가지 이교철학과 지식을 보태어 여러 가지 교회의 그릇된 전승을 붙여 성경을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내었다. 중세 로마카톨릭의 화려한 예배의식은 설교를 사소한 일로 만들어 버렸다. 왜냐하면 미사의식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그 외 많은 의식들이 곁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해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세 로마카톨릭교회의 성직자들은 설교를 등한시하였으며 그 결과 수도승들이 이러한 태만에 대해 오랜 동안 항의하며 설교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 역시 대세에 휩쓸리고 말았다. 위클리프(Wiclif)의 "가련한 성직자들"(Poor priests)은 설교를 무시하는 성직자를 책망했지만 위클리프와 교도들의 주장은 묵살되었다. 또한 영국에서 "설교하지 않는 성직자"들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맹렬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설교에 대한 무관심은 보편적이었고 많은 불평들만이 있었던 반면에 설교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열의는 실제로 놀라운 것이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열렬한 설교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설교사역자의 모범이 되어 주위에 영향을 미쳤다.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의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한 것 같았지만 그들의 개혁의 주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으며, 개혁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말씀의 사역에 심혈을 기울였다.

종교 개혁자들로 인하여 설교는 예배에서 제 위치를 회복하기 시작한다. 종교개혁 이후 예배에서는 미사가 사라지고 성경강해가 중심이 되었다. 이리하여 아마도 14세기 이후 예배에서 설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하게 된다. 종교개혁자들로 인하여 설교가 예배가

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설교 없는 종교개혁은 상상 할 수도 없다. 종교 개혁은 올바르게 말씀 선포에로의 회귀였기 때문이다. 설교학자 브러더스(Broadus)는 종교개혁의 특성을 ① 설교의 회복 ② 성경적 설교의 회복 ③ 논쟁적 설교의 회복 ④ 은혜의 교리에 대한 설교의 회복 등으로¹⁾ 종교개혁은 설교가 없었던 1000여년간의 강단에 설교의 회복과 설교의 부흥을 가져다 준 설교의 혁명이었다.

2. 성경 재발견으로서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 강단에 서게 된다. 철학과 종교를 조화시킨 중세 로마카톨릭 스콜라시즘의 설교란 성경본문에는 관심도 없었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의 격언이나 교훈 중에서 끌어다가 종교적 강화 정도로 쓰는 것이었다. 더구나 6세기에 와서는 성경본문을 읽는 것 자체를 중단해 버렸다. 중세교회의 사제들은 성경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본문 때문에 설교자의 내용이 제한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탈출하려고 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성경본문을 쓰는 것을 아주 낡은 습관으로 이해했다.²⁾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믿음과 신앙에 관하여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고 기독교 교리, 예배, 생활의 진실된 개혁에 특징적인 요소로 여기게 되었다. 그들은 감정과 확신과 이성을 존중하며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인도하시고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라고 믿었으나 만일 이러한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결정적인

1) Edwin C. Dardan, *A History of Preaching*, Vol. II, 김남순 역 '설교의 역사 II'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5), 115-7.

2)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108-9.

시금석(test)이요 궁극적인 심판대(appeal)가 되었다.

중세 설교자들의 무모하고 근거 없는 신비적 해석은 루터, 쾰리,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에 의해 이성적이며 분명하고, 문법적이고, 교훈적인 강해설교로 바뀌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후련하다. 칼빈의 성경 주석은 지금도 매우 귀중하며 성경 말씀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그의 책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 설교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지각 있고, 설득력이 있는 성경 해석을 설교의 확고한 기초로 삼음으로써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의 진보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의 설교에는 성경이 위엄(honor)과 권위(power)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중세 로마카톨릭 설교의 대대를 형성하였던 저급한 우화들과 성인들의 전설과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있을 수 없는 기담(奇談)들은 종교개혁자의 설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 있고 설교의 틀과 내용에서 항구적인 영향을 마치고 있지만 그 정치(精織)한 스콜라학풍이 많이 희색되었음을 본다.³⁾ 그러나 공정하게 판단하고 스콜라적 흔적을 적당히 제거한다면 종교개혁 설교의 씨실과 날실은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은 명백하고도 두드러진 사실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초한 설교를 통한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성경의 재발견이라는 가장 귀중한 유산을 물려 주었다.

3. 말씀중심의 예배회복으로서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자들에 의한 말씀 전파의 불길은 성경의 재발견과 때를 맞추어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에 대한 새로운 번역의 시도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참된 예배의 복원을 가져오게 되었다. 사실 중세 로마카톨릭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예배의 본래 정신에서 이탈되어서 순전히 의식화되어 갔는데 예배는 일반

3) *Ibid.*, 128-9.

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를 사용해서 성경봉독이나 기도를 했다. 그런가 하면 중세 로마카톨릭은 서서히 제사의식이 복잡해지고 성직자가 전문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제계급과 평신도 계급의 이층구조를 낳게 되었다. 의식화된 종교는 점점 성상숭배니, 마리아 숭배니, 유물숭배 등이 왕성하게 되었고, 미사에 있어서 우상숭배 행위가 합법화되어 예배의 중심이 되고 말았다.⁴⁾ 그래서 중세 로마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고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의식적인 종교가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항하여 개혁자들에 있어서는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이 바로 예배 의식이었다. 성경봉독 다음에는 바로 설교를 했으며 찬송과 기도를 함께 했다. 신약시대의 예배가 희생의 예배(worship of sacrifice)의 형태가 아니고 말씀 중심의 예배(worship of Word)라면 칼빈주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재건(Re-establish worship by Preaching)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인식했다. 그래서 루터는 설교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고백하면서 "내가 설교하기 위하여 강단에 오를 때나, 성경을 봉독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을 때 그때는 이미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혀는 이미 쓰신 분(하나님)의 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확신했다. 또 칼빈의 말을 인용하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설교의 말씀 선포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청중에 꼭 같이 일한다"라고 하였다. 칼빈주의 예배의 핵심은 두말할 필요없이 말씀 중심의 강조(A central emphasis on the word)를 내세우게 된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 선포 없이는 성찬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칼빈은 루터처럼 "말씀과 신앙이 상관 관계가 있다"(Word and faith are correlatives)고 보고 성만찬까지도 결국 "말씀의 표"(sign a verbi)로서 이해하였다. 칼빈주의자의 예배 원리로서 설교를 가운데 둔 것

4) *Ibid.*, 110.

은 성경외의 것에다 무엇을 첨가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⁵⁾ 이와 같이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카톨릭의 비성경적 희생의 예배형태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재건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III. 존 칼빈의 설교론

사실 칼빈은 설교학에 대한 논문을 전혀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교리서, 주석서, 그리고 특히 그의 수많은 설교와 신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그의 설교학의 요소들을 끄집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요소들을 통채로 다 드러내기란 본 주제의 한계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몇 가지 주제들을 다루므로 그의 설교의 세계를 가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설교자(說敎者)에 대한 칼빈의 인식

1) 하나님의 대언자(代言者)인 설교자

설교자는 누구인가? 그 정체(正體)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설교사역에서 소중한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다. 여기에 대한 칼빈의 해석은 오늘의 설교사역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도 하거니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확고한 신학적 바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자의 봉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다.⁶⁾ 이와같이 설교자가 복음을 설교함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하고도 큰

5)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91), 601-2.

6) John, Calvin, *베드로전서 주석*, vol. IV. 607.

가치있는 봉사를 드리기 때문에⁷⁾, 그리고 그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인정되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은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 권위가 목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그를 보내시는 이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⁸⁾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⁹⁾이라고 단언하면서 하나님은 많은 탁월한 은사들을 주셔서 인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특권은 황송하게도 인생의 입과 혀를 성별 하셔서 그들 속에 자신의 음성을 대언하게 하신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설교자에 대한 인식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처럼 그는 설교자란 하나님의 장중에만 존재하고 그 분의 주관 하에 있는 실존으로 규정하고 있다. 칼빈은 설교자들의 뿌리를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두면서 그 예언자들은 성령의 발성기관으로서 오직 위탁된 말씀만을 외치는 도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예언자들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어진 메시지에 국한된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황홀경에 빠져서 제 정신을 잃고 예언을 하는 이방 종교의 예언자들과는 철저히 구분을 짓고 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비록 성령을 그들의 인도자로 알고 순종하여 따랐고 성령이 주신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성을 잃지 않고서 충분히 맑은 정신으로 말씀의 발성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속에 전체의 생을 맡기고 살았던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7) 로마서 주석, vol. III, 19.

8) Richard Stauffer, *Calvin et Sermon*, 박건택번역, 칼빈의 신교학 (서울: 도서출판 나비), 63.

9) *Homilies on 1 Samuel*, xlii, 42.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었고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파헤치도록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칼빈은 오늘의 설교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복음의 선포를 위한 도구로 고용된 말씀의 대리자임을 스스로 확인할 때 그 사용권이 고용주에게 예속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대사가 자신을 파송한 분의 뜻을 이탈하지 않을 때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무오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그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할 때 진정한 설교가 된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사사로운 해석이나 불확실한 설명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특별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 바탕을 두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말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2) 그리스도의 사신(使臣)인 설교자

칼빈은 교회의 권위에 있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다스리는 유일한 권위라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 강요 4권 3장에서 하나님만이 교회를 지배하시며, 교회 안에서 권위를 또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셔야 한다. 그리고 이 권위는 그의 말씀에 의해서만 행사된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실 때에는 친히 말씀을 사용하신다. 따라서 이 말씀 안에 사람의 섬김을 요구하신다고 말했다.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3가지로 설명하였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사신(使臣)의 직분(고후 5:20)을 주셔서 그에게 감추인 뜻의 해설자나 또는 자신을 대표하는 자로 삼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시며 중

요시하시는가를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음이(고전3:16, 17, 6:19, 고후6:16) 헛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마치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입을 통하여 인간에게 대하여 응답을 하시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함으로써 가장 유용한 습관인 겸손을 길러 주는 유익한 훈련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흠으로 빚어진 보잘 것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 듣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건과 복종을 가장 잘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신적 지혜의 보배를 연약한 『질그릇』(고후4:7)에 감추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배를 얼마나 존중하는가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셋째로, 한 사람이 목자로 세움을 받은 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로 임명된 자들이 한 입으로부터 같은 교리를 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형제 상호간의 사랑을 길러 주는 가장 적절한 굴레가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간 본성의 거만함이며 서로를 낮추어 보는 경향이다. 따라서 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단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일종의 가시적(可視的)인 끈을 가지고 자기의 교회를 한데 묶어 놓으셨다.¹⁰⁾ 그러므로 칼빈은 성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현세의 삶을 지탱하고 더욱 더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과 열이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하듯이 지상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사도직과 목사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¹¹⁾라고 하였다.

10)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이문제 역 (서울: 해문사, 1974), 103.

11) *Ibid.*

3) 사도적 사역의 계승자(繼承者)¹²⁾인 설교자

칼빈의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조직 가운데 옛날의 선지자와 오늘날의 교사가 서로 비슷하고, 사도는 오늘날의 목사와 서로 일치성을 갖는다. 즉 교회의 사역자들은 모두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이기 때문에 사도라 불려진다는 것은 원리로 보아서나 또 어원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했다.¹³⁾ 그러나 칼빈은 목사는 그들에게 맡겨진 특정한 개개의 교회를 통치하는 점이 다를 뿐이며 사도들과 동일한 직권을 가졌다는 것이다¹⁴⁾.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에 「복음을 전파하라」 또는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마28:19).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는 자신의 몸과 피의 거룩한 ‘표적’을 자기가 몸소 보여 주신 모범에 따라서 나누어주도록 명령하셨다(눅22:19). 보라 이것이야말로 ‘사도’의 위치를 계승하는 자에게 주어진 거룩하고도 침범할 수 없는 또 영원한 법이다. 즉 그들은 이 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설교』와 『성례전의 집행』을 명령받은 것이기 때문이다.¹⁵⁾

그러면 목사는 어떠한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찌어다』 라고 말할 때(고전 4:1), 이것은 다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만이 아니라 『목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 전부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다¹⁶⁾. 또한 『감독은 미쁜

12) 사도적 계승에 대해 한스 킹은 말하기를 부활한 주님 자신이 증인이요 사자라는 점에서 사도들의 후계자는 있을 수 없고 사도들의 부름은 계속되지 않는다. 직접의 증인이요 사자라는 기본직무로서의 사도직은 사도들의 죽음과 더불어 사라졌다. 직접 목격자이며 직접 파견받은 자로서의 사도직은 반복과 계속은 없다. 그러나 사도적 사명과 봉사는 남아 있으며 사도적 봉사라는 사도적 사명의 존속에 사도직의 계승이 있다. 이것은 법적, 사회학적 의미의 승계가 아니며 소수의 개인이 아닌 온 교회가 사도들을 계승한다고 하였다.(Hans Kung, Was ist Kirche?, 이홍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분도출판사, 1997), 145-147.)

13) 존 칼빈, *Ibid*, 114.

14) *Ibid*.

15) *Ibid*.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딤후1:9). 이 구절들과 이와 비슷한 구절에서 『목사』의 직분에는 두 주요한 부분이 있음을 결론할 수 있다.¹⁷⁾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성례전을 집행하는 일』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칼빈은 설교자, 즉 오늘날의 목사를 사도적 사명의 계승자로 보았던 것이다. 결국 ‘사도’가 전 세계에 널리 행한 그 일을 목사는 그들에게 분할되어 있는 양무리에게 행하는 것이다.¹⁸⁾ 따라서 오늘날 칼빈주의자들은 교회의 사도적 계승을 로마카톨릭교회¹⁹⁾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찾는데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우게 하는 복음이 사도들의 메시지로 주어졌고 이 메시지가 사도들의 발걸음을 따라 다른 사자들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새롭게 전파되기 때문에 사도적이라고 불리워진다”²⁰⁾고 하였다.

2. 설교(說敎)에 대한 칼빈의 인식

1)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 되는 설교

16) *Ibid.*

17) *Ibid.*

18) *Ibid.*

19) 로마교회는 조직 면에서 자기들만이 베드로 사도를 초대 교황으로 하는 사도적 계승을 받았으며 자교회(自敎會)의 신부들만이 사도때부터 안수로 말미암아 직접 사도적 계승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교회사 분야의 권위있는 역사학자인 샤프(Philip Schaff)교수에 의하면 교회 권력을 한 손에 쥔 그레고리 I세(Gregory the Great I, 590-604)가 자신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마16:18절을 세시하여 교황권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사도적 계승인 교황 제도는 사도시대로부터 약 500여년 동안이나 존속하지 아니하다가 AD.590년 그레고리 I세때부터이다(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Eerdmans, 1957) vol. III, 328.)

20) Gustaf Aulen, *The Faith of the Christian Church* (Muhlenberg, 1948), 336.

칼빈에 의하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에서 떠난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 면전에 오게 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는 증거하기를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로 오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가까이 오신다.²¹⁾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소유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방법으로 대화하신다..... 이렇게 복음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강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과도 같다.²²⁾ 그는 진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설교를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데 커다란 느낌을 받게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설교자가 진리를 명확하게 해석함으로써 설교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설교에 있어서 진실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과업을 책임있게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깨닫고 있다. 칼빈은 지적인 호기심을 통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은 설교를 묵상하는 중에 그들이 진리를 붙잡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확실히 믿었다. 칼빈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려고 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순결한 것이 전제된다. 기도는 설교하는 중에 병행된다. 칼빈에 의하면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회개와 믿음과 복종의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얼굴에 나타내는 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의 설교에서 먼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주고 그 후에 그 교훈이 사람의 심령에 생생하게 접촉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설교자는 성령이 그 설교자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칼빈은

21) 에베소서 14번째 설교, CO LI, 415

22) 사무엘하 16번째 설교, *Supplementa Calviniana*, vol I. 136.

인간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고 명백히 가르쳤던 것이다.

2) 성령의 내적 증거²³⁾에 의한 설교

칼빈은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 강조하면서 복음의 시종을 위해 맡겨진 가장 빛나는 재능들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어떤 능력도 발휘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강조하였다. 말씀의 외적 설교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효과도, 어떤 열매도 없다.²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인간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가 우리 내부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효과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 내부에 말씀하시기를 간구해야 한다²⁵⁾고 하였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칼빈은 성령님의 도우심(조명)과 그 역사하심(감동)을 강조하면서 성령님께서 설교자의 앞에 놓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가르침의 멍에가 될 때에만 하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유용한 능력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칼빈에 따르면 우리의 설교자들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가르침이 동반되도록 간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지극히 제한된 것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23) 종교개혁자시대에 개혁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귀능있는 것으로 신앙과 회심에 인도하는 효능을 발휘함은 오직 죄인들의 마음에 성령의 수반적 공작(隨班的 工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리의 성화하는 감화보다 앞서서, 또는 그 감화를 유효하게 함에 필요해서, 영혼에 성령의 공작이 행한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성령의 선행적 사역(先行的 事役)을 위한 기도, 심정(心情)을 변화하며 신령한 눈과 귀를 열어 영적 사물을 식별하며 이해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가 많다.

24) 요한복음 주석, vol. II, 29.

25) 신명기 175번째 설교, CO XXVIII, 625.

모두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동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모든 능력은 결코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이어야 함을 말한다. 거기에 더하여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의 귀가 뚫어지고 눈이 열려져야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진리는 오직 한 기적만이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3) 이중 음성(duplex vox)의 기능을 가진 설교

칼빈에 의하면 설교자는 두 개의 음성을 가져야 하는데, 첫째는 양들을 영접하고 모으는 음성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드러운 음성이고, 둘째는 이리와 도둑을 쫓아내는 음성이라고 하였다²⁶⁾.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처럼 두 음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부드러운 음성으로는 온순한 이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며, 다른 한 목소리로는 이리와 도둑들을 향해 대항하여 양의 우리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순수한 하나님의 교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²⁷⁾ 칼빈은 이 두 기능을 구별하기를 곧 한 기능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칭송을 받으며, 또 다른 한 기능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⁸⁾ 첫 번째 기능은 신자의 구원을 효과적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데 있다.²⁹⁾ 두 번째 기능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을 시험과 해부

26) 디도서 주석, vol. IV, p. 323.

27) 디모데 전서 22번째 설교, CO LIII, 265-6.

28) Richard Stauffer, 71-2.

29) 로마서 주석, vol. III, 210.

대에 내맡겨서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이 개혁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학교에서 가르치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지적해 주신다.³⁰⁾ 칼빈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 자신은 그 말씀을 변개할 수 없고 청중은 그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모오한 진리의 전달자가 되고 마치 다변자처럼 그의 이름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자들이다³¹⁾. 그러므로 설교를 경멸하는 것과 설교 듣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적 간섭을 거절하는 것이며, 탈주하는 말과 길잃은 짐승이 될 것이며³²⁾ 결국 자신을 구원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설교란 독자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기호를 억제하면서 신자들을 한 몸으로 연합하는 풀 수 없는 끈이다.³³⁾우리가 사람들에게 의해 통치되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하여 괴로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질서에 따라 외적인 설교 외에는 달리 우리를 완전케 하고 서로 연합시키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하였다³⁴⁾.

3. 존 칼빈의 설교 원리와 방법

1) 존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설교 원리

①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설교

30) 디모데전서 47번째 설교, CO LII, 560.

31) 신명기 109번째 설교, CO XXVII, 515.

32) 신명기 194번째 설교, CO XXIX, 147.

33) Richard Stauffer, 75.

34) 에베소서 주석, vol. III, 801.

칼빈은 설교할 때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표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대사로 여겼다. 그러므로 설교는 단순히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든가 교회의 임무들 가운데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현현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말은 내가 하지만 교육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도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만일 저 높은 곳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나를 유익되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목소리는 허공에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³⁵⁾라고 하였다. 그는 이사야 주석 55:11에서 어느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인간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그 도구로써 사용하시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말씀 안에서 빛나고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마주 대한 것처럼, 말씀으로 무한한 감화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의 거룩성과 권위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증거자는 증보자되신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 오시리라는 대망을 들려주어야 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설교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자신을 가혹하다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다니엘서 21번째 설교에서는 만약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들이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가 선포

35) Richard Stauffer. 124.

한 것과 동일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내게 주신 분량에 따라 그를 신실하게 섬겼음을 그 분 앞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설교자는 그의 설교에 있어서 성경본문의 지배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어리석은 사색을 구한다든지 그들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개조해 보려고 교회로 나온다면 그들은 복음을 더럽히는 꼴이 될 것³⁶⁾이라고 하였다.

②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으로서의 설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칼빈의 설교관에서 설교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임을 보여준다. 칼빈의 설교에서 특기할 만한 것 세가지 정도를 지적 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성경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설교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친다. 둘째로, 칼빈은 설교에서 청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선된 수사학적 도구를 채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의도는 설교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인 것을 인식한 것이 아니겠는가? 셋째로, 칼빈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책임을 가지고 그의 청중의 편에 서서 계속 일깨워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설교의 특징은 그의 설교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행위임을 의식한 것임을 보여준다. 칼빈은 설교자의 입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입"이라는 칭호로 불렀는데 이것은 "사자"라는 칭호보다 더 우월할 것이다. 이는 설교자가 강단에 섰을 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⁷⁾ 이러한 칼빈의 설교에 대한 인식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며, 또 하나님

36) *Ibid.*, 124-131.

37) 정성구, *op.cit.*, 541-2.

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가까이 오신다." 이렇게 복음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로마서 10:17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함과 같이 만약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가장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만남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설교는 인간이 직접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의 베일에 싸인 채 인간에게 다가오는 은총의 형태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성경이 설교자에 의해 설교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칼빈의 눈에 비친 설교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현현, 혹은 하나님의 현현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었다³⁸⁾.

③ 그리스도의 통치수단으로서의 설교

설교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이다. 설교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인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비록 그가 우리와 동일하게 보이고, 대단한 존경을 받거나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하더라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씬이 선포되는 곳에 계시고 그의 왕적 보좌를 그 곳에 두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질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이니 타락과 비참에 의해 지배되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변형시킴으로 우리는 복된 왕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왕국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역자에서 시민으로 바꿔 놓으셨다. 말하자면 복음은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설교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지배의 세력 아래에 두기 위함인 것

38) Richard Suauffer, 65.

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 불러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은 말하기를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인 성경에 주어진 내용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단순하게라는 부사를 통해 설교란 청중들의 이해력에 부응하여 각 신자가 그 설교에서 자신의 몫과 분깃³⁹⁾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고, 둘째는 간결하게 평이한 간결성과 결코 애매모호함이 없도록 하여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용기있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악한 인간성에 대해 공격해야 한다. 말씀의 사역자는 우물우물 말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주님께서 그의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혹은 꾸밈없이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설교자의 자세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확실히 전하는데 있다.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와 설교자들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강단은 교회와 세속적인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칼빈은 에베소서 설교에서 설교란 그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권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치하고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 교회 그 자체에도 비밀이 알려지지 않은 교회의 장중에 있는 점인 것이다. 교회 중의 그 점은 적들을 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것이냐, 혹은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을 또 다시 영원히 파멸시켜 버릴 것이냐 하는 택일성의 문제를 지닌 채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엡6: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통해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항해서는 안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 어디에나 크고 넓은 하나님

39) 디모데후서 12번째 설교, CO LIV., 151 2.

40) 사도행전 주석, vol II., 186.

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인 것이다.

④ 효력있는 은혜의 방편⁴¹⁾으로서의 설교

칼빈은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기를 비록 말씀이 연약한 인간에 의해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의 명령과 약속 이행으로써의 전능한 힘을 지녔다고 보았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려고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댓가를 지불하시기 때문이다. 즉 그가 명하신 말씀은 바로 행하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증거자의 입을 통하여 용서를 베푸실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는 진실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는 선포된 말씀이 효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효력있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설교인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설교에 대해 “그리스도는 말씀 전파자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비추고 그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며, 즉시 그들을 온전히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 있는 것이며 바로 효력과 연결된 것이로되, 권능과 통하는 강력한 도구이니, 주님의 신성한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온전히 효력을 발휘하리이다. 복음은 단지 들려주기 위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씨앗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 함이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안식을 얻고 구원을 확신함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함이라고

41) 칼빈주의 신학자 Charles Hodge는 “은혜의 방편이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영적 건덕을 방편들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들에게 은혜 즉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를 주는 통상한 경로가 되기로 정하신 제도들이다”라고 했다(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III Ch.20). 칼빈주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와 성례 거행과 기도를 드림은 기독교회에서 공적으로 시행되는 은혜의 방편들이다.

하여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설교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성경, 특히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의 성경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성령의 능력의 현현으로서의 설교

칼빈은 디모데후서1:9-10의 설교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하거나 역사함이 없이는 또는 믿음으로 오지 않는다면 인간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⁴²⁾라고 했다. 그러므로 청중의 가슴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조명과 믿음의 수반없이 말씀의 성실한 설교일찌라도 청중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실은 칼빈의 설교관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한 설교'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의 어느 부분이라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이라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설교는 성령의 권능으로써만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 뿐이며, 외적인 말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효력도 청중에게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설교자는 설교에 앞서 기도으로써 준비하여 말씀을 전달하는 그 자신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설교가 그 자체로서는 듣는 이들을 변화시킬 아무런 힘도 없음을 인식했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말할 때, 그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듣는 이 각자에게 내가 제시하는 교리를 받도록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가치있게 하셔야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 뿌리를 내려 우리에게 썩지

42) 디모데후서 첫번째 설교, CO LIV, 11.

않는 생명의 씨가 되도록 생기를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회개의 은사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통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회심은 하나님이 은밀히 역사하시는 사람 즉 선택받은 사람들 안에서만 열매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회심의 역사, 구속과 영생의 기쁨이 죄인들의 영혼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설교자의 설교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는 성령의 권능의 결과인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강조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선포의 효력은 청중의 수용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또한 설교자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단언하건데, 인간의 입에서는, 즉 단순한 소리 중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나올 수 없으며 이는 오로지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2. 칼빈의 설교 방법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칼빈은 직접 그의 설교학을 저술하지는 아니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보존된 그의 2000편이 넘는 설교와 칼빈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종교개혁 저작전집이 편집될 때 구약이 571편, 신약이 297편 868편이 수록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이 남긴 수많은 그의 설교 가운데서 칼빈의 설교방법과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설교는 어떠한 방법이었으며 또한 그 내용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1) 연속적이고 명쾌한 강해설교였다.

칼빈의 설교에는 그 당시 개혁자들의 설교 방식이었던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전하는 강해설교이었다. 그의 주석들은 그의 설교와 강의의 열매였고 그의 설교들은 주해의 연장이며 또한 적용이었다. 대부분 그의 설교는 구절 구절을 강해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사상의 흐름이 있고 논리적 연속성이 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단순한 주석이 아니라 신속한 지각, 확실한 감각, 능력있는 표현 등으로 성경의 깊은 뜻이 드러나도록 하며 설교자의 기교의 도움 없이도 깊은 인상을 청중들에게 심어 주었다. 그는 디모데전서에 대한 47번째 설교에서 설교의 3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의도를 걸치레하지 않고 또 청중의 귀를 간질이지 않고 백성의 유익과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⁴³⁾ 이러한 칼빈의 설교를 가르켜 설교학자 부로더스(Broadus)는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주석은 바로 명쾌한 성경강해(Clearest Expository of Scripture)였다고 지적했다. 그의 설교준비는 종교개혁자들의 책을 읽는 일이며 초대교부들을 포함한 스톨라 철학자들, 그리고 자기와 다른 학문적 입장을 표방하는 자들의 주해서를 깊이 있게 탐독하는 일이었다. 그 외에 그의 탁월한 성경 원어와 라틴어 지식 그리고 놀라운 성경 지식이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설교는 간단히 어떤 사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풍성한 성경 지식과 원어 지식 그리고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과 당시의 청중들에게 올바르게 적용하려는 데에 있었다.

칼빈은 당시의 설교가들에게 권고했던 설교 준비방법은 설교 준비는 너무 체계적이거나, 미리 작성된 설교문을 준비해서 단어들을 암송하는 것으로 속박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설교란 결코 읽혀져서는 안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설교방법에 대해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

43) 디모데전서, CO LIII, 561-2.

운데서도 1548년 10월 22일, Somerset 공에게 쓴 편지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초했던 Paul Henry의 가설을 다시 취하면서 칼빈은 언제나 즉흥적이며 원고없는 설교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⁴⁴⁾ 그러나 칼빈의 신명기에 대한 49번째 설교에서 우리는 이러한 조잡스러운 착각을 지워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핑계하에 설교를 전념하여 준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태도를 예를 들어 책망하기를 “그것은 마치 내가 단위에 올라서서 감히 책도 참고하지 않고 않은 채 허튼 상상을 짜내며 내가 단위에 갈 때 하나님은 내게 말할 충분한 것을 주실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강조해야 할 것을 감히 읽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백성교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미리 잘 숙고해보지도 않고 나오는 것과 같다.”⁴⁵⁾라고 하였다. 강해 설교자 칼빈의 눈에 비친 신실한 설교란 우선적으로 준비되고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과 청중에 대한 올바른 적용이었다.

또 칼빈 연속적이며 명쾌한 강해 설교자였다는 사실은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에도 교회력(敎會曆)에 있는 대로 따르지 아니했다. 그는 강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의 일반적인 방법은 성경 전체를 차례로 설교하는 것이었으며, 경우에 따라서 교회의 절기 때는 변경하기도 했다. 칼빈이 본문을 읽는 양은 내용에 따라서 다소 달랐다. 가령 구약의 역사서나 복음서를 읽고 줄거리를 말해야 할 필요가 있

44) Das Leben Johann Calvin, *des grossen Reformators*, vol.2, Hambourg, 1838, 194-5, Richard Stauffer, *op. cit.*, 73 재인용. 이 편지에서 칼빈은 영국에 살아있는 설교가 매우 적음과 대부분 책을 읽듯이 암송한다고 아쉬워한다(CO XIII, 70-71). 칼빈의 이렇게 말한 것은 설교를 쓰는 설교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1547년 Cranmer 대주교의 감독하에 출판된 설교집을 사용하는 그 당시 설교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Richard Stauffer 교수는 주장한다.

45) 신명기 49번째 설교, CO XXVI, 473-4.

을 때는 10절에서 20절 정도 읽고 신약의 서신부나 기타 교훈적인 구절로 설교할 때는 2, 3절을 정도를 읽었다. 칼빈은 성경 전체를 연속적으로 강해했는데 그가 강해 설교한 책들은 창세기, 신명기, 욥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대선지서 전부, 소선지서 전부, 그리고 복음서 전부,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등을 강해 설교를 했다.

2)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 전부를 설교했다.

종교개혁 당시 개혁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분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설교 분야에 대해서는 스콜라적인 표준 설교와 비교해 보면 개혁자들의 설교는 주제설교(topical sermon)라기보다는 강해설교(expository sermon)였다. 그리고 틀에 매인 설교가 아니고 자유롭게 흘러가는 설교였다⁴⁶⁾. 또 개혁자들의 설교는 종합적이라기보다는 분해적이었으며, 논리적인 난해한 설교가 아니라 평범한 표현으로 진리를 말했고 수사적(rhetoric) 정확성보다는 회화적인 방법을 택한 설교였다. 칼빈도 예외는 아니었다. 칼빈의 설교는 더 단순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의 설교는 다른 신학적 작품의 조직과는 전혀 다른 무엇이 있었다. 칼빈은 강해설교를 할 때, 연속적인 문장을 각 절씩, 혹은 각 구절씩 설명과 주를 달면서 본문을 대하곤

46) 이러한 칼빈의 설교스타일을 원고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즉흥적 설교 또는 원고없는 설교(extemporaneous preaching)였다고 그를 '변사 주석가'라는 말하는 자들도 있으나 미국칼빈신학교 Samul T. Logan교수는 그의 저서 「설교지침서」 147-9에서 extemporaneous preaching은 일떨길에 하는 즉흥적인 설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되 원고없이 하는 설교를 말한다. Extemporaneous는 라틴어 ex tempore에서 왔는데 '순간적으로', '상황의 요구에 따라'라는 뜻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설교자는 주석가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교회)의 요구와 시대의 필요성을 따라 성경 메시지를 해석하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했다. 칼빈은 늘 원문대로 설교하면서도 성경 각 권과 각 장의 중요성을 철저히 고려했다. 그의 강해설교의 원리는 언제든지 성경은 성경으로 강해되고 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해 설교자로서의 칼빈은 실제로 설교를 전개해 갈 때 본문 자체의 구조 외에는 특별한 구조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에는 정연한 윤곽과 조직으로만 빠지기 쉬운 어떤 구성이 없다. 이처럼 칼빈이 특별한 조직으로서 설교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그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순서를 배열하지 않았다는 데서도 볼 수 있다. 칼빈의 입장은 미리 정해진 사상의 배열을 따르는 것보다는 성경 본문으로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칼빈은 한번 어떤 주제를 미리 내걸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교하지 아니했다. 칼빈의 설교를 잘 관찰해보면 그 설교들은 실상 모두 하나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것은 교리설교이며, 저것은 강해설교라는 식으로 구분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칼빈의 설교 중에서 이것은 전도설교이고 저것은 실제적 설교라는 구분을 할 필요도 없었다. 이 말은 칼빈이 교리나 실재를 무시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성경 전체를 설교할 때 교리와 실재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강해’와 ‘적용’의 구분이 없었다. 그 이유는 강해는 적용의 씨줄과 날줄이고, 적용은 강해의 옷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교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신앙과 생활 조화를 찾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칼빈의 설교는 개혁주의 설교의 모델을 제시했고 그의 강해 설교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Scriptura Sola)으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 전부"(Scriptura Tota)를 증거한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설교 원리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들에게 성경적 설교의 기준과 내용이 되어야 하는 개혁주의 설교의 원리를 제시하였다.⁴⁷⁾

47) 칼빈의 설교원리였던 ‘오직 성경’(Sola Scriptura)으로, 그리고 ‘성경 전

3) 진지함, 명확함, 그리고 단순한 설교였다.

칼빈의 설교 방식은 매우 단순하고 선명하다. 그의 설교는 매혹적이니 만큼 명백하다. 또한 그의 설교는 잘 이해되도록 짜여졌다. 칼빈의 설교 스타일의 가장 큰 특성은 그의 설교의 진지함과 솔직함과 함께 명확함과 단순함에 있다고 본다. 이것은 당시의 다른 개혁자들의 설교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그 당시의 설교자들은 아직도 화려함과 모호함을 자랑하는 중세시대의 특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칼빈의 경우는 학문적이며 기교적인 방법을 그의 설교에 도입치 않고 가능한 모호한 단어 사용을 피하였다. 칼빈의 설교에서 그의 문장은 매우 구체적이고도 활기 있는 단어들로 빛나고 있다. 특히 칼빈은 주목받을 만한 예화를 사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이끌어 낸 것들이었다. 칼빈의 설교에는 표현의 충분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았으며 간결하게 처리했다. 그런데 칼빈이 사용한 언어들이 성경 자체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사용하는 궤변이나, 이른바 설교를 윤택하게 한다는 노력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칼빈은 그의 설교 언어를 사용할 때 무엇을 꾸미려고 하지 않고 다만 회중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설교 스타일에 있어 장식적이거나 기교적인 것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다. 칼빈은 그 이유를 설교란 '청중들의 이해력에 부응'하여 각 신

부'(Tota Scriptura)를 선포해야 한다는 성경적 설교의 원리를 개혁주의 신학자 C. Trimp교수는 개혁주의 설교의 적실성(relevance)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로마카톨릭교회는 교회의 전통이 설교를 보증하며, 현대신학자들은 성경의 실존적 재해석이 설교의 보증이나, 개혁주의자 신학은 성경 그 자체에 의존한다.

자가 그 설교에서 ‘자신의 뉘와 분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⁴⁸⁾ 이러한 칼빈의 설교 방법은 말씀의 사역자의 주된 힘은 평이한 간결성에 있는 것이요 결코 애매모호함으로 부터 나올 수 없고, 순수하고 솔직함으로 쓸모없는 여담을 피하고 쓸데없는 수다를 금하며 그가 설명하려고 했던 성경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설교 방식은 단순성, 명쾌함 그리고 힘찬 하나님의 말씀의 사용이 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4)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theocentricity)의 설교였다.

칼빈의 설교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며 칼빈의 설교의 사상은 그의 하나님 중심 사상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주축으로 한다. 칼빈 신학의 "하나님 면전"(Coram Deo)의 사상은 그의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칼빈의 설교는 청중으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그래서 크로밍가 교수는 칼빈의 설교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인간(Man Before God's Face in Calvin's Preaching)을 강조했다. 그리고 칼빈의 설교는 '하나님'이란 통괄적인 명칭으로 신성(神性)을 강조한다. 루터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강해(a Christ centered exposition of every Passage of Scripture)하였다. 그런데 칼빈은 알기 쉽게 삼위일체 이신 구세주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칼빈의 설교에는 삼위일체 중의 어느 위(位)를 특별히 강조할 때 생기는 위험을 발견할 수 없다. 삼위일체를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태로운 이상숭배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위(位)란 용어를 꺼려하고 오히려 본체(substance)란 용어를 택한 이유이다. 위대한

48) 디모데후서 12번째 설교. CO LIV, 151-2.

종교개혁가 칼빈은 교회 중심의 로마 카톨릭교회의 체제와 또 인간 중심의 자유주의 철학도 논박했다. 또한 그는 삼위일체 중에서 제2위(位) 또는 제3위(位)와 같은 어느 한 위만을 특별히 강조하는 일단의 중파들 사이에 만연된 사조를 논박한다. 칼빈의 설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논증적인 구절들을 늘 명백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칼빈은 성령 중심의 신학만 강조하게 되면 운명론적 주관주의(subjectivism)로 향하는 첫 단계가 되기 쉽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만을 강조하는 것은 인본주의로 조금씩 다가가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이 두 사실은 칼빈의 설교의 줄기며, 꽃이며, 뿌리이다.⁴⁹⁾

이것을 볼 때 칼빈의 설교의 입장과 현대 설교에서 나타난 이론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 오늘날의 설교가들은 대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각 위(位)별로 독립적으로 분산시켜서 언급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런 경향은 설교에서 뿐만아니라 목회기도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이런 위협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포괄적이고 함축성이 풍부한 명칭으로 삼위일체를 동시에 설교하고 있다. 그의 설교는 언제 하나님 중심적(theocentricity)인 신학적인 틀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칼빈의 설교의 신학적 특징 중의 하나는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조이다. 특히 칼빈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조점은 욥기의 강해설교에서 잘 나타난다. 이런 섭리에 대한 강조라든지 선택에 대한 강조점도 역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므로 설교자로서의 요한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교리를 성도의 위로로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칼빈의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추상적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으며, 교의적

49)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7), 536-7.

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다.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는 바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연관지어져 있다. 칼빈의 설교에서 주권적 은혜는 선택의 계속적인 강조와 더불어 모든 설교의 주제였다. 칼빈의 설교는 그것이 단순히 신학의 일부분이거나, 성경의 한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구원과 성도들의 삶 전체를 다루며,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설교였다.

VI. 칼빈의 설교신학에 대한 논쟁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자였던 칼빈은 성경 전체를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를 했을 만큼 많은 분량의 설교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역사가들이 설교를 문서 자료화하여 지위를 회복했을 때나, 16세기 학자들이 칼빈의 동시대인들에게 끼친 영향이 대부분 그의 설교자로서의 활동 덕택이었음을 발견했을 때에도 그의 설교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황무지 상태였다. 그의 수많은 설교 작품들이 성경주석들이나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가리워져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칼빈의 설교를 계속 연구해 나갈 때, 설교자 칼빈에 대한 새로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방대한 그의 신학 작품과 신학사상에 대해 다 다룰 수 없지만 그의 설교에 나타난 설교신학적 주제 즉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 대하여 Richard Stauffer 교수의 견해를 소개하려고 한다.⁵⁰⁾

50) 이 내용들은 칼빈의 설교에 연구에 많은 저서들을 남긴 스토페르(Richard Stauffer)교수의 저서 *Calvin et Sermon*(1977), 박건택역, 칼빈의 설교학 (서울: 도서출판 나비, 1990)에서 밝혀한 것이다.

1. 하나님의 속성

설교자 칼빈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스콜라학파의 가르침과 결별함으로 신학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계시의 문제에서 이내 삼위일체 문제로 넘어가면서,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그가 중세 신학자들의 관심 사요 De Deo uno(유일신에 대하여)의 논문들에 나타나는 관심사들과 관계가 없었음을 보이려 했다는 것이다. 칼빈 연구의 부흥에 뒤이어 신론과 창조 및 섭리론이 먼저 기독교론에 의해, 다음으로 교회론에 의해 가리워졌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련의 이러한 견해들은 칼빈이 기독교강요에서 출애굽기 34:6과 예레미야9:23에서 인출하여 속성의 두 범주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칼빈의 설교에 의해 단호히 부인된다. 워필드(Benjamin B. Warfield)는 지적하기를⁵¹⁾ 칼빈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심을 갖고 있고, 뿐만아니라 이 문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높은 강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설교자 칼빈의 주의를 가장 자주 끌었던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들이었나?⁵²⁾ 그의 설교작품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는 속성들은 하나님의 무한성, 능력, 공의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한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무한성에 대해 칼빈은 성경 본문중 하나님의 위치국한

51) Cf. *Calvin and Calvinism*, New York, 1931, 134-5.

52) 설교자 칼빈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중 거룩성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속성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성은 신령에 의해 독점되기 때문일 것이며, 개혁자 칼빈의 신학에 결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위엄은 칼빈의 설교에서 경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고 제안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자"(흔히 칼빈을 부르는 대로)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그토록 귀중한 *mysterium tremendum*(부시부시한 신비스러운 존재)를 불러내야 할 의무란 없다.

(localisation)에 대한 언급을 접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이 속성을 말한다. 한 동사를 사용하면서-"enclore"(가두다)라는 동사는 칼빈의 어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는 하나님께서 신현때 싸여있는 구름이나⁵³⁾,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다녔던 장막이나⁵⁴⁾,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⁵⁵⁾ 간혀 계시지 않음을 강조한다. 성경이 하나님을 장소에 국한시키는 것은 오직 인간을 우둔함과 무지함에 응하고, 또 그들의 협소함과 연약함에 적응하기 위함이다. 칼빈은 그의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위치화시키는 모든 것을 조심케 하는 것으로 만족치 않는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려고 내려 가신다거나⁵⁶⁾ 또는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 행진하신다라고 말하는 본문들을 비공간화시키려 한다. 게다가 칼빈은, 내가 현대 적이라고 규정짓고 싶은 그런 표현으로, 성경이 하나님을 하늘에 주거시키는 것이 그에게 정말 거주지를 설정해주려 함이 아니라 우상숭배하기 좋아하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 땅에 가두지 못하게 하기 위함임을 보여준다.⁵⁷⁾ 하나님의 무한성은 이와같은 것으로, 칼빈은 그의 설교 중에 이 무한성으로부터 그 교리적 가치가 대단한 두 가지 결과를 끌어내는 데,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두어 둘 수 없었고 그리하여 이 신성은 성육신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육체 밖에(etiam extra carnem) 존재하시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무한의 속성에서 끄집어내는 두번째 결과는 성례 신학의 영역에서 나타

53) Cf. 신명기 175번째 설교, CO28, 628.

54) Cf. 신명기 175번째 설교, CO28, 626.

55) Cf. 신명기 81, 83, 107번째 설교, CO27, 167, 192, 491: 이사야 18번째 설교, SC2, 166-167: 그리고 미가서 2번째 설교, SC5, 11.

56) Cf. 신명기 175번째 설교, CO28, 628; 그리고 에베소서 40번째 설교 CO51, 751.

57) Cf. 사무엘하 25번째 설교, SCI, 221.

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는 구름이나 장막, 혹은 성전에 갇힐 수 없었던 것 이상으로 성례에 갇힐 수 없는 것이다. *etiam extra sacramenta*(여전히 성례 밖에)라는 이 개념으로 칼빈은 그의 설교에서 화체설 교리와 싸웠고, 하나님께서 빵과 포도주 안에 갇혀 있다는 신앙을 불합리하고 조잡한 미신으로 고발했다.⁵⁸⁾ 개혁자 칼빈의 설교 작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증거들은 그가 중세 신학자들의 문제제시 방법론과 급진적으로 결별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이것들은 또한 기독교 강요의 교의학자가 그 작품에서 하기를 거절했던 것을 설교자로서 그는 강단의 높은 곳에서 목회자 청중들을 앞에 두고 행했음을 입증하는데, 결국 그는 단순한 신자들과 더불어 기독교 사상의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 중 몇 가지를 두려움 없이 다룬 셈이다.

2. 삼위일체 교리

개혁주의 신학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대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초판(1536)부터 정통에 합당한 태도로 이 교리를 설명했다. 그런데 1537년 ‘제네바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서와 신앙고백’에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관계들을 기술하면서 위(*personne*)와 삼위일체라는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Farel과 더불어 카롤리(*Caroli*)에 의해 아리우스주의로 고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계속되는 후속판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계속하여 발전시키는 작업을 했고, 1537년에서 1561사이에 일련의 소논문들에서 반삼위일체주의와 극렬하게 싸웠다. 개혁자 칼빈의 생애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수호하는 일이 이러한 역할을 했다면, 이 교리가 그의 설교 작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견성해 보는 일 또한 어렵지 않겠

58) Richard Sauffer, *op. cit.*, 92.

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신학자 칼빈이 설교에서의 삼위일체 교리가 매우 드문 몇 개 정도에 지나지 않음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설교에서, 구속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언급하되 결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용어에 의지하지 않는 문구들을 발견한다. 설교자 칼빈은 신명기 148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표명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천명하시면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 서명날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을 통해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서 보다 잘 비준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설교에서 논쟁적인 억양이 담긴 몇몇 텍스트들을 만난다. 그곳에서 설교자 칼빈은 성부 성자 성령을 지칭하기 위해 "위(位)"라는 말을, 하나님의 신비를 벗기기 위해 "본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언제나 거부하면서, 성경에 익숙치 못한 그의 청중들에게 기독교의 공통된 항목들을 회상케 하려 했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고대성을 자랑하는 교황주의자들에게 개혁파들이 거룩한 족장들과 사도들에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이려 했다.

형식상 성경에 주어진 것에 엄격히 만족하는 방금 위에서 말한 본문들 외에, 우리는 결국 설교에서 칼빈이 삼위일체 교리에 차용된 용어들을, 극단적인 유보로, 또 그것들을 주석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몇몇 문구들을 발견한다. 에베소서 6번째 설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분명한 형상"으로 제시한 후, 성자와 성부 사이의 모든 혼동을 피하기 위해 위(位)의 구별을 강조하려는 경향을 띤다. 에베소서 8번째 설교는 다시 기독교론적 문맥 속에서 "결코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부의 생생하고도 명백한 형상을 가질 쥘대", 우리에게 "본체상" 한 유일신이 계신다는 점을 지적한다. 창세기 첫번째 설교는 창조사역을 상기시키면서 엘로힘(Elohim)이라는 복수형 단어에 대해 주시하

고 "하나님 한분 외에 다른 본체란 없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설교들 중 어느 것도, 심지어 우연히도 "위(位)"라든가 "본체"라는 용어를 썼던 설교들조차도, 설교자 칼빈이 삼위일체 교리에 정말 주의를 기울였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그가 16세기에 가장 활기찬 논쟁들을 야기시킨 이 문제에 대해 강단에서 전혀 무관심했다고 결론지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 작품 중 5개의 문구들에서 그는 그 문제에 결국 도달하기 때문이다. 다섯개의 문구들을 비중의 크기의 순서대로 분류하면 디모데전서 27번째 설교, 에베소서 22번째 설교, 창세기 첫 번째와 6번째 설교, 마지막으로 공관복음 47번째 설교에서 찾아진다. 이것들은 다시말해 세르베투스 사건(1553)이후에 행해진 일련의 설교들이고 또한 그들 중 대부분은 젠틸리스(Valentin Gentilis)와의 논쟁이 후의 것들이다.

설교자 칼빈의 설교작품의 삼위일체에 대한 본문들을 조사한 후, 우리는 어째서 이러한 본문들이 그토록 드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카를리가 칼빈을 아리우스주의로 의심했을 때 잘 보았다는 말인가? 물론 그것은 아니다. 설교자 칼빈이 그의 설교에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보여주는 이러한 유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Stauffer 교수는 네가지 이유들을 들어 반박했다.

첫째는 칼빈은 아동교육적 순서에 대한 염려에 복종한다. Instruction et confession de foi dont on use en l'Eglise de Gengve(제네바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서와 신앙고백)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설교에서도 칼빈은 그에게 어렵게 여겨지는 기술적인 어휘를 피하려 한다(공관복음 47번째 설교에서 위라는 용어에 대해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는지를 보라). 그는 성직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 언어로 기독교 교리를 제시한 생각이었다(우리가 들추어낸 본문들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한 그의

거부를 보라).

둘째로 칼빈은 신비에 대한 존경의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창세기 첫번째 설교에서 삼위일체가 "우리의 지각을 훨씬 뛰어넘는 비밀"이며,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해야 한다고 표명한다.

셋째로, 칼빈은 종교적 인식이 현저하게 실천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에 대단히 차있는 그가 설교에서 삼위일체 교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만 신자로서 체험적 반향, 다시말해 구원론적 반향이 있는 경우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성경에 충실하려는 열망으로 고무되었다. 성경 계시에 대한 존경하는 태도 속에서, 그는 성경에 암시적인 방법으로 밖에 들어 있지 않는 한 교리에 머무르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설교자 칼빈이 Sola Scriptura의 원리에 돌린 결정적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설교에서 보다 더 이 원리에 충실한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말하겠다.⁵⁹⁾

3. 하나님의 형상(Imago Dei)문제

하나님의 형상 문제는 칼빈 신학의 가장 복잡한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텍스트들은 실상 수도 많고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수적 풍부와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의학자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숭한 부연들이 있지만 그의 설교의 많은 문구들에서 확증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구들 곁에는, 설교 가운데, 특히 비기독론적 문맥에서, 칼빈은 imago Dei를 각 인간에게 존해하는 실재(realite)로 여기는 것이다. 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여러 텍스트들에서, 죄의 경륜 속에서, 인간 피조물들은 그들의 창

59) *Ibid.*, 103-4.

조주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빚어졌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의 설교 작품의 여러 문구들에서 그는 전혀 애매함 없이 단정하기를 각 인간은 태어날 때 *imago Dei*를 부여받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율기서 11번째 설교가 보여 주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는 것은 인간의 '고상함'과 '위엄'인 것이다.⁶⁰⁾ 설교가운데의 이러한 모든 일련의 문구들은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되어질 때 아담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 곧 계속적 창조(*creatio continuata*)인 섭리 안에서 인간들의 탄생시 그 존재들을 자기 형상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imago Dei*는 자연적 소유라고 말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칼빈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인간의 생식에 의해 유전되지 못하고 언제나 창조주의 특별한 간섭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존재하는 유추(*analogia entis*)의 의미로 *imago Dei*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개혁자 칼빈은 거기에 '거울'의 의미를 준다는 것이다.⁶¹⁾ 토렌스에 의하면 개혁자 칼빈은 인간이 *imago Dei*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는 경우에, 그리고 인간이 창조주로 하여금 인간 자신 속에서 반영되게 할 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렌스의 설명에 대해 Stauffer 교수는 하나님께서 각 인간존재 안에 자신의 형상을 '새기고', 좀 더 자주 쓰여진 말로 '인쇄로 찍었다'(*imprimz*)고 선언하시는 숭한 문구들을 곱해하고 있다. 자신의 명제에 모순되는 이러한 문구들을 토렌스는 다만 은유적 의미로 꾸며진 것처럼 여긴다.⁶²⁾

60) 율기 137번째 설교, CO35, 240.

61) 토렌스에 의하면 칼빈이 *imago*를 언제나 거울이라는 용어를 빌어서 생각하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다. 거울이 한 색채를 실제로 반영할 때만, 그 거울은 그 색채의 상을 갖는 것이다. 칼빈의 사상 속에서 반영하는 행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imago*로서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Cf. Torrance의 *Calvin's Doctrine of Man*).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문구들을 그들의 문맥에 위치시키면서 검토하는 일이다.

설교자 칼빈이 인간에게 '새겨진'(imprimz) imago Dei에 대해 상세히 말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다른 피조물에 대한 인간존재의 우월성이 문제되는 곳이다. 이처럼 칼빈은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다고 강조한다.⁶³⁾ 그런데 16세기에 피조물이라는 용어는 살아있는 존재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또한 무생물체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리하여, 칼빈은 하늘의 별들과는 달리, 인간은 '새겨진' imago Dei를 받았다고 말하는 셈이 된다.

두번째로 설교자 칼빈은 그의 청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향한 의무를 상기시키려할 때, 비록 이들이 무어족이나 바르바리 아족(=야만인)이라 하더라도 아담의 자손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있음을 강조한다.⁶⁴⁾ 이러한 관점에서, 내 이웃,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치는 일은 '자신을 스스로 흉하게 할'⁶⁵⁾뿐 아니라 바로 창조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다.⁶⁶⁾

62) 칼빈은 '새겨진' 그리고 '조각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은유적 의미에서이지 결코 거울의 개념에서 벗어난 그런 것이 아니다.

63) 시편 119편에 대한 10, 20번째 설교들, CO32, 594와 717-8; 욥기 11 번째 설교, CO33, 145; 에베소서 28번째 설교, CO51, 599; 그리고 창세기 7번째 설교.

64) Cf. 신명기 112. 126번째 설교들, CO27, 542-543, CO28, 22; 욥기 44번째 설교, CO33, 553; 갈라디아서 41번째 설교, CO51, 105; 디모데전서 14번째 설교, CO53, 160; 사무엘하서 6, 11번째 설교, SCI, 49, 94-95.

65)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은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기 위함이다. 그가 우리 안에 자신의 형상을 삼으셨고 또 공통된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자극하여 서로 서로 돕게 하여야 한다. 사실 이웃을 돕는 일에서 면제되기를 바라는 자는 자신의 품위는 떨어뜨리고 있으며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기를 원치 않고" 있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갈라디아서 41번째 설교, CO51, 105)

66) Cf. 신명기 84번째 설교, CO27, 204.

세번째로 설교자 칼빈이 인간 안에 '새겨진' *imago Dei*를 취급하는 것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르도록 결정되어 있음을 보이려 할 때이다.⁶⁷⁾

이러한 결과를 통해 Stauffer 교수는 두 가지 결론을 이끌어냈다. 첫째로 지금까지 분류한 본문들은 '새겨진 형상'이란 표현이 거울의 개념을 참조케 하는 하나의 은유라는 해석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치 않는다. 이 본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자신을 반영시킬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imago*가 인간 안에 창조된 하나의 실재임을 알게 한다. 두 번째로는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⁶⁸⁾ '새겨진 형상'과 관련있는 본문들이 이 형상을 불신자나 신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imago Dei*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구속주의 은혜의 혜택을 받은 이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오직 창조주의 은사만을 받은 이들도 해당된다⁶⁹⁾라고 반박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광의 신학자 칼빈의 신학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쇄신할 수 있는 설교 작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보다 유의하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독교강요가 프랑스 개혁자의 사상을 알기 원하는 자들을 만족시켰다. 후에 성경의 해석가는 놀랍게도 기독교강요의 천재적인 조직신학자를 보완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제네바의 설교자에게 그가 받아 마땅한 위대성을 결정적으로 돌리고, 그의 설교들이 교의 작품이나 주석 작품과 동일하게 풍요로움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혁

67) Cf. 신명기 46번째 설교, CO26, 439; 욥기 11번째 설교, CO33, 145; 그리고 니모데후서 18번째 설교, CO54, 214.

68) 신명기 90번째 설교(CO27, p. 275)에서 칼빈은 *imago Dei*를 유대인들에게 돌리며 이방인은 제외시킨다. 그리고 욥기 4번째 설교(CO33, 59)에서 그는 이 *image*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는 개혁과 기독교인들에게만 침되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69) Stauffer, *op. cit.*, 114-5.

자 칼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석가 칼빈을 알아야 한다. 또한 개혁자 칼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교자 칼빈을 알아야 한다."

V. 결 론

자금의 한국교회는 급변하는 문화 사회적 변화 앞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은 붕괴되고, 전혀 새로운 상황이 태동되고 있으며,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 그리고 오늘의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의 변화는 설교 사역이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오늘의 청중들은 메시지를 받는 방식이 달라지고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틀, 즉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설교자는 이러한 상황 변화와 함께 '설교의 위기'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한국 교회 강단은 회복되고 개혁되어야 할 설교 갱신의 강력한 요구 앞에서 있다. 아무리 변화하는 시대에서 산다 할지라도 설교자가 가져할 말씀의 패러다임을 바로 가질 때, 시대를 말씀으로 조명하고 변화시키는 말씀 사역으로 감당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칼빈의 말씀 사역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된다. 약 1000년 동안 설교의 암흑시대에서 설교의 회복한 칼빈과 그의 동역자들은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말씀이 말씀되게 하라"는 슬로건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외침의 중심을 이루었다. 칼빈이나 츠빙글리,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교이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성경을 수천년전에 쓰여진 기독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21세기의 문턱에 서 있는 설교자들은 급변하는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밤에 그발 강가에 서 있었던 에스겔과 같이 이 시대를 향한 몸부림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vision)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설교의 상황은 향락주의와 물질주의, 다원주의와 해체주의, 거대한 정보의 숲 속에서 살아가면서 생의 즐거움(entertainment)을 찾으려는 군상들의 발걸음은 빨라지는데, 이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들려지고 설교되어지는 곳마다....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참 고 도 서

1. 존 칼빈, 기독교강요
2. 존 칼빈, 성경 주석
3. 존 칼빈, 엄성옥 역, 요한 칼빈의 설교집(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은성, 1989.
4. 박건택 편저, 칼빈과 설교, 도서출판 나비, 1988.
5. 로날드 윌리스, 이종태 역, 칼빈 신학의 이해, 생명의 말씀사, 1991.
6. 존 맥아더외, 김동완 역, 강해 설교의 재발견, 생명의 말씀사, 1993.
7.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총신대학출판부, 1991.
8. 에드윈 C. 다야간, 김남준역, 설교의 역사, 도서출판 솔로몬, 1995.